모습 보고 믿지 말고 네 마음 깨달아야

☞ 17면에서 계속

가지고 행도 그렇게 해야하고,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는 옷을 입고 중심으로서의 중용을 하고, 항상 이리로 치우치지도 않고, 저리로 치우치지도 않고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 되면서 일체제불의 몸 안에 들은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데 꿰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첩단의 공부, 첩단을 넘고도 남음이 있는 공부입니다. 여러분에게 백일기도를 드리고 공부를 하라고 하니 못합니까, 또는 삼천 배를 하라고 그러니 공부를 못합니까, 일을 하지말고 만날 틀어 앉아서 좌선을 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못합니까, 일하는 게 그대로 공부 재료고 생활 자체가 그대로 재료예요.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바로 영원한 자기의 '자신' 입니다. 그걸 자부처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작은 것 버리고 큰 것을

자기부터 마음 세계를 알아야, 만약에 그 도리를 안다면, 알아서 그대로 여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죽은 세상 산 세상이 다 한 자리에 있어요. 천당 지옥도 이 한 자리에 있구요. 그렇다면 귀신이 뭐 다른 겁니까, 우리가 죽으면 귀신이 돼요. 선신이냐 귀신이냐 한 차이 밖에 안나죠? 그런데 선신도 귀신도 둘이 아니에요. 왜? 애당초에 몰라서 그랬지 알면은 그런 짓 안하죠. 몰라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깐 내 말은 애당초에 신선한 마음 자체는 티끌 하나 붙을 자리가 없으나 모르기 때문에 일을 저질러놓고 본 겁니다. 그러니 '나는 업보가 많아, 죄가 많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이 마음 도리를 자꾸자꾸 배우다보면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카셋트에 녹음되어 있는 노래를 잘 듣다가 '이 노래가 시원치 않아, 다른 거 좋은 것이 또 나왔어. 그러니까 다른 노래를 다시 입력해야지' 할 때 앞서 시들해진 거를 지우고 다시 새 노래를 넣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음한데 다가 다시 녹음을 해야지 앞서에 넣었던 녹음이 지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지워지죠.

그렇듯이 내 속에서 나온 거를 내 속에 다 넣어야 지워지지 안 그러면 어떻게 지워지겠습니까. 마음으로 잘못한 거 마음에다 집어넣어야 마음 속에서 지워지지 어떻게 지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보, 팔자운명 타령하지 마시고, 모든 거를 입력을 해서 앞서됐던 입력이 차례차례 나오는 대로 그냥 모조리 용광로에다가 넣듯이 다 입력을 하세요. 나중 걱정은 하지 말구요. 저절로 넣기만 하면은 재생이 돼서 나가는데 왜 그런 거 걱정까지 하면서 난리를 칩니까?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종들이 종문서 때문에 꼼짝 못하고 벗어날 수가 없죠? 종문서를 면할 수가 없죠?

오늘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점안식 했다고 그러니깐 또 그런 말이 나오죠. 부처님께서 점안식을 받을 때에 부처님 형상을 조성해서 놓고…,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복을 입었으니까 중노릇을 해야죠. 그러고 허술리 하지 말아야죠. 계율 아닌 계율을 지켜야죠. 말을 잘못해도 안되고 행을 잘못해도 안되고 모든 것이 제한됩니다. 그렇듯이 돌이라도 불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벌써 거기다가 절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희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본다면 지금 배울 때는 내 모습과 부처님 형상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의 법이 내 법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다 해 가지고 둘 아니게 돌아갈 때에 점차적으로 자기를 자기가 탄생시켜서 기를 때에 점수라고 합니다. 다 길러서 봤을 때는 '아하, 부처님 상이 크고 커서 세상을…' 이 세상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덮어도 남음이 있는 부처님의 몸이로구나, 아주 귀중하게 다시 바꾸어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무슨 형상 뭐 어쩌고 그러죠?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일체중생들 마음과 내 뱃속에 있는 의식들과 전부 한마음을 만들기 위한, 그러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실천하시란 얘깁니다. 그렇게 해놓고 봐야 불상 하나 하나도, 아니 산 불상은 불상이 아닙니까, 또 거지가 저기 온다 하더라도 거지 불상도 불상은 불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합니까?

엄지손가락만 쓸모가 있고 높은 게 아닙니다. 새끼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높은 겁니다. 산중 깊이 들어가 보면 고목도 있고 벌레 먹은 나무도 있는데 그런 게 끼여 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은 겁니다. 불상 사나운 나무가 없는데 좋은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좀 더 자비의 눈으로 보고, 자비의 귀로 듣고, 우리가 실 생활하는데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정말이지 실천하고 가시는 분들은 착착 그렇게 하면서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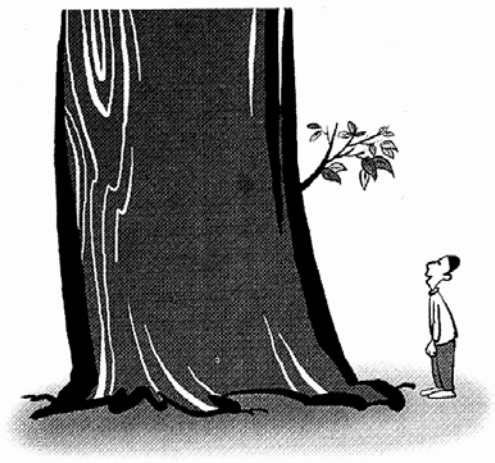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가 죄가 많다 한탄말고 마음으로 잘못된 것 고쳐야

생활자체가 공부재료

두드려 패고 그러던 가정도 화목하게 지금 잘 산다고 합디다. 그건 왜냐? 한마음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례로 나오던 업보가, 인과성이 있기 때문에, 유전성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업보성이 생기고, 영계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만 해결할 수 있다면 열 가지 백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나오죠.

부처님이 전자에 전자의 그 시대에 방편으로 설법해 놓으신 거는 그 시절에 알맞은 이름이었고, 지금은 이름이 다 변경이 돼 가지고, 달구지가 짐차가 돼고, 짐차가 비행기가 돼버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모두 바뀌었으니 지금은 바뀐 이름으로 말을 해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광주에 오나 어딜 가나 너무도 감사하고, 세계를 다니며 봐도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탑지도 최초에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난도 해소할 겸 또 한 탑에만 찾아오면 조상들을 다 찾아뵈게끔 할 수 있는 것, 또 자꾸 자꾸 묘지가 헐리고, 묘지도 전세 들었다가 기간이 다 되면 전세 돈 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대나 5대를 넣어서 지나면 소해서 승천시키고, 그 밑으로 연방연방 공부하는 조상들로 해서 아래 튼튼하게 기둥이 선다면 대대손손이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영가로 좋은 집에 태어나서 잘 되지 않겠습니까? 공자님 어머니가 공자를 낳을 때 그렇게 정성을 들여 낳았듯이 말입니다.

아마 이 도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어린애 가졌을 때 그냥 낳지 않을 겁니다. '당신께서 좋은 영혼을 주소서.' 좋은 영혼을 줘야 종자도 좋고 다 좋듯이…,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아요. 자손들이 마음을 개선시켜서 바꿀 생각을 한다면 안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절로 그건 착해지죠. 저절로 현명해지구요. 저절로 물리가 터지게 되구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한번 여러분이 실천을 하면서 진짜로 믿어보세요. 나는 어떠한 거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 자기 자신이 자기를 끌고 다니니까, 자기를 형성시켰으니까, 과거에도 형성시켰고 현재에도 형성시켜서 끌고 다니는걸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알아야 남들도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걸 알고, 남들도 그렇게 마음이 오고 감이 없이 저승 이승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오더니 안 오잖아. (대중웃음) 여러분을 고생시키느라고 그러지 뭡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고생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깜짝 안 한다는 그 뜻을 말입니다.

광주의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얘기해 드린 거 조금도 허술히 듣지 마시고, 어디다 비면하게 물 떠놓고 빌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집이 부모는 신도가 아닌데 그 집 아들, 딸들이 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산에다가 물 떠놓고 빌다가 그만 잘못돼 가지고는 모두 탕진을 하게 되고, 뭘 모셔놓으라고 그래서 모셔놓았는데 자식들 혼기가 막히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일을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또 걱정이죠. 그러니 그냥 대대손손이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일이 있다고 그 애들이 복통을 하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차피 그렇게 했으니, 모르고 그 착을 떼지 못하니, 너희라도 부지런히 해서 모두 한마음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의 도리로서 녹이면은 다 한마음이다. 그리고 그거는 빈 껍데기만 남으니 부모가 그거를 할 때 싱거울거다. 하하하…, 싱거우면은 저절로 하기 싫어서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해라. 그래 난 이거 못하겠다 할 때 그때에 내다 태워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생전에 살아있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죽는다면 고정된 그 마음이 그대로 자식들이 대를 받아서 해롭게 됩니다. 못 살아요. 그러니 그런 일들은 아예 하지말고, 물을 떠놓고 빌거나, 또는 집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경을 읽는다거나, 또는 절을 하거나 빌지 마세요.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사진을 놓고도 생각지를 마세요. 나는 미리 여러분이 그럴 줄 알고 미리 제한을 해놨으니까 망정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요. 그래서 진실하게 자기 주인공에다가 내 마음도 같이 넣고 하세요. 그러면 그 빛이 샘솟듯 할 수 있겠습니다.

물 떠놓고 빌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체들의 몸뚱이는 집이 되고, 또는 우리 집이나 몸뚱이 집이나 다 공기주머니 안에 갇혀서 지금 오물오물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마음공부를 하는 거는 내 몸도 벗어나야 하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기주머니 안에서도 벗어나야 내 마음대로 오신통을 굴리면서 살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잘 깊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비가 올 줄은 생각지도 않구요. 바깥에서 할거를 생각지도 않구요, 인제 집을 지어놨으니까 아무렇게도 안에서 하니깐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했더니 그게 잘못이었어요. 하하하. 날더러 바깥에서 한다고 귀띔만 해줬더라면, 하하하….

※위 법문은 1995년 4월 29일 광주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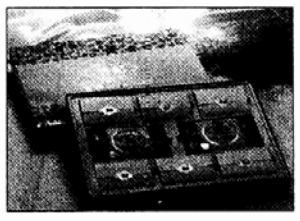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항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해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天蕊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率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55-7555